

# 위기에 몰린 ‘시민의 발’

## 드라마 <무빙> 속 시내버스 기사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비밀스러운 초능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인 전계도(차태현). 아버지에게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다 우연히 배터리가 방전된 버스를 고쳐주게 되면서 자신의 쓸모를 찾는다. 전계도는 도움을 받은 기사와의 인연으로 시내버스 기사로서 삶을 시작하게 된다. 승객에게 친절하고 언제나 안전운전을 하던 그. 악당인 정준화(양동근)가 나타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버스 밖으로 대피시키며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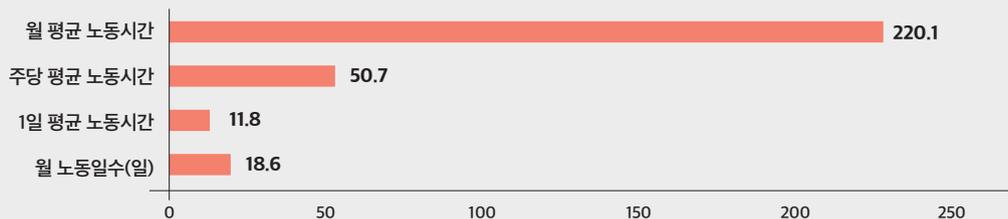
이처럼 버스 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구인난으로 인해 연령은 점점 고령화되고, 허리 디스크와 치질 등 직업병에도 취약해져 간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젊은 층의 운전기사들이 택배와 배달업계로 옮겨가면서 버스 운전기사 지원자가 현저하

게 줄어들었다. 최근에도 부산에서 버스 기사가 전체 채용 필요 인원의 49%만 채용이 되었다고 밝혀졌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결국 버스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 기사의 노동조건은 승객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미비하다.

### 물 한 모금도 사치인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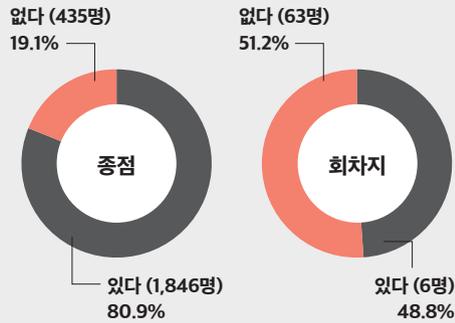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권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나 버스 기사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오랜 시간 용변을 참아 발생하는 방광염 등 비뇨기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경로가 정해져 있기에 해당 노선에 화장실이 없으면 운행시간 내에는 용변을 보기 어렵다. 화장실 사용이 마땅치

<표1> 시내버스 노동시간 현황 (약 3000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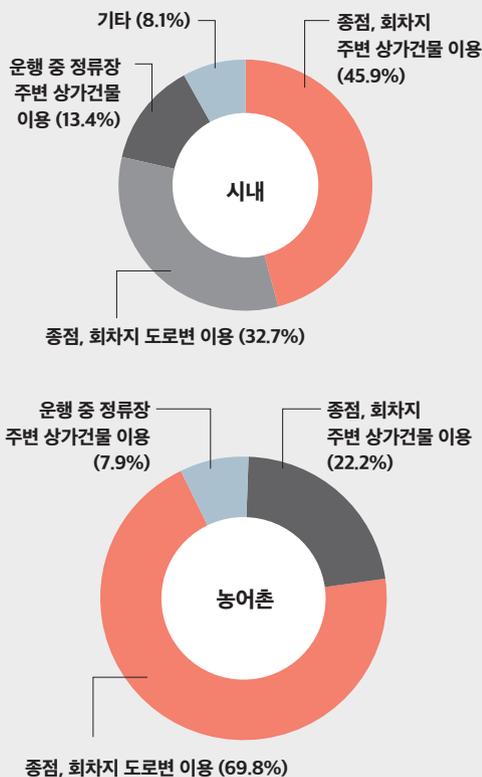
출처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18년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표2> 종점·회차지 화장실 설치 여부



출처 : 전국자전거노동조합연맹,  
2018년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표3> 화장실 미설치 시 생리현상 해결방법



출처 : 전국자전거노동조합연맹,  
2018년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않아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으로 해결하거나 노상 방뇨하는 경우도 있다. <표3 참고> 특히 밤 시간대에는 공중화장실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용변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한다. 운행 거리가 60km 이상인 장거리 노선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길게는 다섯 시간 넘게 운전해야 하는데, 민원 접수나 과태료가 걱정되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갈증을 참는 게 일상이다.

이에 따라 비뇨기 질환은 버스 기사의 직업병이 되었다. 생리현상을 참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방광염 외에도 신우신염, 요로감염, 남성의 경우 전립선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비뇨기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 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용변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셈이다.

### 과속 유발하는 배차 시간

2021년,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심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까지, 주택가와 같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까지 속도를 제한했다. 도입 이후 교통사고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배차 간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행시간이 늘어나며 점심 먹을 시간조차 빠듯한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압박감을 느끼며 운전대를 잡은 이들은 촉박한 배차 시간을 맞추고 짧게 보장된 휴식시간을 늘리기 위해 더욱 속도를 냈다. 최근에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과속과 과로에 내몰리게 되면서 도로 사정과 현행 제도가 동떨어져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비단 시내버스의 문제만이 아니다. 당장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마을버스와 고속버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나’ 그리고 ‘우리’의 편리함을 책임져줄 운송수단인 만큼, 모두가 안전한 공공버스를 만들기 위해 버스 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이 요구된다. 🗣️